▶▶ 매일 INDEX

9면
축제로 더욱 특별해지는 무주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음 1월 6일) 제3445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자치도, 민생 살리기 '총력전'

출범식 · 보고회 성료
4월 총선 끝나는 대로
경제 · 복지 · 건설 등
3개 분야 중심 구상 중

'전주공동체라디오' 개국 축사하는 우범기 시장

전주공동체라디오는 14일 오후 2시 전주역 인근 맛집창업교육관 5층에서 개국식을 연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전주공동체라디오는 전주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다루는 전북지역 유일의 시민라디오 방송이다. 〈관련기사 5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치도 출범식과 보고회를 마무리 하고 오는 봄부터는 민생과 현장속으로 들어간다.

지난해 새만금잼버리 파행 논란에 이어 연말 SOC사업 예산 대규모 삭감에 따른 복원 노력에 총력전을 폈던 도정을 올해 초부터는 민생과 현장에 집중하겠다는 포석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월 18일 특별자치도 출범식을 마친데 이어 최근까지 도내 14개 시군을 7개 권역으로 나눠 도지사가 직접 찾아가 설명하는 도민 보고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4월 총선이 끝나는 대로 민생, 현장 중심 사업을 적극 구현하기 위한 구상 작업에 돌입했다.

도가 일단 생각하는 안은 '다함께 하는 민생'을 큰 그림으로 두고 기존의 관련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신규 시책을 적극 발굴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지난 6일 가칭 '다함께 민생살리기 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하고 각 실국에서 민생사업 안을 구체화 하기로 하는 등 '민생보듬기'에 시동을 걸었다.

'민생일보 행복만보(民生一步 幸福萬步)'를 캐치프레이즈로 한 이번 민생 살리기 정책을 통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업계와 중소기업, 골목상권, 건설, 보육 분야는 물론 청년, 고령층, 소외계층에 대한 밀도있는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도는 우선 경제와 복지, 건설 등 크게 3개 영역을 중심으로 민생을 챙겨야 할 분야로 판단하고 실행계획과 관련 사업들을 현장에서 찾는다는 방침이다.

도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모아 필요한 재원 마련계획 도출, 도민 의견 수렴 및 현장 의견 청취활동 등을 거쳐 신속한 추진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난해 이차전지 기업을 비롯한 10조원이 넘는 투자유치에 성공했지만 잼버리 사태이후 예산 복원 등에 전력하면서 민생부분이 다소 소홀했던 것 같다."며, "겨울 동안 민생현장 프로젝트를 잘 준비해서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봄부터는 민생과 현장을 적극 챙기면서 대민 지원을 크게 강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무한한 성장 · 확장 의미 담다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 공개
전주(Jeonju)의 이니셜 'J' 모티브로 활용
영화 프레임 속 예술인들의 역동성 묘사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
〈사진=전주국제영화제 제공〉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가 공개됐다.

14일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민성욱 · 정준호)에 따르면 2020년부터 해마다 '전주(Jeonju)'의 이니셜 'J'를 모티브로 활용해 다채로운 공식 포스터와 페스티벌 아이덴티티(F.I)를 선보여왔다.

'도전과 확장의 축제'를 스크린으로 표현했던 지난해 공식 포스터에 이어, 올해 공식 포스터는 생장 중인 식물의 나선에서 영감을 받아 '무한한 성장과 확장'의 의미를 담았다.

특히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는 영화제를 대표하는 이니셜 J를 기호화 해 이를 회전시키며 무한히 뻗어나가는 형태로 영화제의 비전을 생동감 있게 나타냈다.

또한 모퉁이 여백은 영화의 프레임을 상징하며 둥근 곡선을 통해, 움직이는 예술인 영화의 모든 순간을 역동적으로 그렸다. 여기에, 전주국제영화제 시그니처 컬러 '전주레드'를 사용해 영화제만의 고유한 특성을 강조했다.

이번 페스티벌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디자이너 장우석(대한민국), 리네 아른가드(덴마크), 주자나 코스텔란스카(슬로바키아)가 참여했다.

3인의 디자이너는 2016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헤릿리트윌트아카데미에서 만나 그래픽 디자인팀을 이뤄 현재 세계를 무대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한편,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5월 1~10일까지 열흘간 전주 영화의거리를 비롯한 전주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장은성 기자

지난해 도세 1698억원 비과세 · 감면

전북자치도, 기업 지원 · 무주택자 등… 올해 양육지원 등 신설

전북특별자치도는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를 운영해 2023년 도세 1,698억원을 비과세 · 감면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비과세 및 감면유형은 산업단지 및 창업중소기업 등 기업활동 지원(433억원), 차량 비과세 · 감면(442억원), 무주택자 · 출산 · 양육 등 서민생활지원(251억원), 농지취득 및 영농자금 지원(207억원),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교육자치단체(244억원), 신탁재산 · 종교단체 비과세(57억원)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64억원)이다.

사례를 보면 지점 신설 후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신청한 A업체는 사업확장으로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지 않자 2023년 신설된 '인구감소지역 감면(100%)'으로 취득세 1억원을 감면받았으며, B업체는 '기업 인적분할 감면(75%)'으로 취득세 118억원, C업체는 '산업단지 내 사업용 건축물 신축 감면(75%)'으로 취득세 3억원을 감면받았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 감면' 확대로 소득 기준 폐지 및 주택가액 기준이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도내 약 6,500명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총 107억원을 감면받았다.

올해부터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및 양육지원 감면'과 기업지원을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감면' 및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등에 대한 감면'이 신설됐다.

출산 · 양육 감면대상자는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이후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이며, 취득세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감면, 초과하면 500만원까지 면제되고 초과분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도내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과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는 기업 및 수도권에서 지방의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등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취득세 50% 감면율에 더해 최대 25%에서 50%를 추가 감면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시 · 군에서도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재산세 추가 감면(5년간 50%)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김재훈 기자

규제 완화… 새만금 산단 관리 기본계획 개정

새만금청, 기업 수요 대응 위해

새만금개발청이 14일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새만금 산단 입주 자격을 이차전지 음극재 원료 생산에 필요한 인조흑연 제조업까지 확대했다.

인조흑연 제조업은 시멘트 · 아스콘 제조 등 유해업종(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으로 취급해, 일률적으로 산단 내 입주가 제한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환경훼손 우려가 낮은 인조흑연 제조 업종의 입주를 허용해 기업의 입주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또 전력 · 가스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신속한 입주가 가능해진다.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심사위원회 의결 및 투자협약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주하는 경우, 입주절차를 생략해 입주에 드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뉴시스